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지방자치단체간 주민행복 차이분석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강 예 람

# 지방자치단체간 주민행복 차이분석

지도교수 김 병 섭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강 예 램

강예람의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전 영 한 (인)

부 위 원 장 고 길 곤 (인)

위 원 김 병 섭 (인)

## 국문초록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후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산이나 정책등과 같은 정책결정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다수이며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의 행복을 종속변수로 삼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서베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행복순위를 정하고 행복 상위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행복의 차이를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때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변수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서베이를 통해 도출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주관적 지표로서 분석에 사용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서비스 제공 실태를 나타내는 수치들은 객관적 지표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지표로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주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객관적 지표로서 행정서비스의 제공 실태 변수 중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도로포장률만이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도로포장률이 1단위 증가할수록 행복하위지방자치단체에 속할 확률이 14.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차량이동이 많아 발생하는 공해나 소음과 같은 환경 문제에 기인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는 가족 수가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가족 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행복하위지방자치단체에 속할 확률이 100%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으로 주어진 행정서비스는 집합적으로 제공된다는 인식이 강하고 주민들이 직접 관료와의 접촉 없이도 소비 가능하므로 지역 주민들의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임에도 개인적 차원의 변수인 가족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개인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을 묻는 하나의 문항에 기초하여 지역의 행복순위를 정함에 따라 종속변수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이다. 둘째, 개인수준의 응답을 지역수준으로 변환하는데서 오는 대표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끝으로 16개 영역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측정 시 가중치 부여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단순 평균값을 매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어: 주민행복, 삶의 질, 행정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로지스틱 회귀분석**

**학 번: 2012-21909**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3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4
제1절 이론적 배경 .....	4
1. 행복과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	4
1) 삶의 질 .....	4
2) 행복 .....	5
2. 지방자치제도와 주민 행복 .....	7
1) 가까운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이다 .....	7
2) 지역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	7
3. 국정목표로서 행복에 대한 논쟁 .....	9
제2절 선행연구 .....	11
1.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	11
1) 단일 지자체 삶의 질, 행복에 관한 연구 .....	11
2) 지자체 간 삶의 질, 행복 비교 연구 .....	13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	19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수 .....	19
(1) 소득과 행복 .....	19

(2) 결혼상태와 행복 .....	20
(3) 성별, 연령과 행복 .....	20
2) 공공서비스의 질과 행복 .....	21
3.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3
<b>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b>	<b>26</b>
제1절 연구문제 및 분석틀 .....	26
제2절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	27
1. 종속변수: 주민의 행복 .....	27
1) 행복의 측정 방법 .....	27
2)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 .....	29
2. 독립변수: 행정서비스의 질 .....	30
3. 통제변수 .....	32
제3절 가설의 설정 .....	35
1.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주민행복의 관계 .....	35
2. 행정서비스 제공 실태와 주민행복의 관계 .....	35
제4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38
1. 분석자료 .....	38
2. 분석방법 .....	41
<b>제4장 분석결과 .....</b>	<b>42</b>
제1절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2
제2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	44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	44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	47
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	49
제3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51
1.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주민행복으로의 영향 .....	51
2. 행정서비스 제공 실태의 주민행복으로의 영향 .....	53
3.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	56
<b>제5장 결 론 .....</b>	<b>57</b>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57
1. 연구 결과의 요약 .....	57
2. 연구의 시사점 .....	5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60
1. 연구의 한계 .....	60
2. 향후 연구 과제 .....	61
<b>■ 참고문헌 .....</b>	<b>62</b>
<b>■ 부록 .....</b>	<b>68</b>
<b>■ Abstract .....</b>	<b>72</b>



## 표 목차

<표1> 삶의 질의 네 가지 구분 .....	5
<표2> 만족의 네 가지 구분 .....	6
<표3> 지자체 삶의 질/행복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	16
<표4>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	22
<표5> 변수의 조작적 정의 .....	33
<표6> 연구 가설 설정 .....	37
<표7> 특별시·광역시 표본배분 현황 .....	39
<표8> 권역별 포함지역 .....	40
<표9> 조사응답자의 특성 .....	42
<표10>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	46
<표11>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	48
<표12>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	50
<표13> 로짓 회귀식을 통한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결과1 .....	52
<표14> 행정서비스만족도와 주민행복의 로짓분석 결과 .....	53
<표15> 로짓 회귀식을 통한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결과2 .....	54
<표16> 행정서비스실태와 주민행복의 로짓분석 결과 .....	55

## 그림목차

<그림1> 연구의 분석틀 .....	27
<그림2> 전국 93개 권역의 행복점수 분포 .....	46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95년 제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과거의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공무원들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민 봉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다산 120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연중 24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 있으며 김포시의 경우 원스톱 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이양으로 인한 갈등이나 지역부패 문제 등을 들어 지방자치제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도 하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목적을 생각해본다면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 정부 들어 국민행복이 국정운영목표가 되면서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는 나라는 ‘작지만 행복한 나라’ 부탄이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자락에 위치한 인구 70만 명의 작은 왕국으로 국민소득이 2천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1972년 부탄의 제 4대 국왕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가 국민행복지수 개념을 제안하였고, 제 5대 국왕 취임 이후인 2007년 12월부터 12개 행정구역의 950명 주민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국민행복지수(GNH)를 기준으로 국민행복지수 향상 여부를 평가한다. ‘무엇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까?’ 라는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부탄 왕국은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자연환경의 보존, 올바른 통치 구조를 국민행복지수의 주요 축으로 삼았다. 국민총생산(GNP)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환경보호, 문화진흥, 좋은 통치를 국정목표로 삼아 부탄 국민들의 97%가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이다.

행복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아져가지만 2000년도를 전후하여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정작 ‘행복’을 종속변수로 삼은 연구들은 많지 않다<sup>1)</sup>. 또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종속변수를 예산지출이나 정책등과 같은 정책결정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행정 활동을 수행하며 접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려해보면 ‘지방자치단체별 행복정도’를 분석단위로 하고 종속변수를 주민의 행복으로 삼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 지방정부가 적절한 지역차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최준호,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서베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행복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행복순위 상위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지방자치단체 간 행복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밝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것이다.

---

1)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김소명 외, 2003)와 행복의 요인이 무엇이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김명소 외, 2003)

##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우선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보되, 본 연구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행복수준이 상이한 두 집단을 나누는 변수가 무엇인지 밝히는 입장에서 접근한다.

### 2. 연구의 방법

우선 본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서베이를 시행한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문제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서베이 결과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행복순위를 도출하고 행복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지자체 집단으로 나누어 이를 구분하는 특성을 검토하였다. 서베이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질문하고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서베이는 현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는 데 초점이 주어진다(김병섭, 2010).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2 삶의 질과 정부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제 1 절 이론적 배경

#### 1. 행복과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행복과 삶의 질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한마디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맞는 개념 검토가 필요한 바 우선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 1) 삶의 질(Quality of Life)

사회학자 Veenhoven(2001)에 따르면 삶의 질은 행복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보통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 ‘성과의 질(quality of performance)’, ‘결과의 질(quality of the result)’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첫째,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이란 살기 좋은 정도(livability)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관점에서 삶의 질이란 좋은 삶을 위한 외부적인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로를 새로 깔거나 공항을 건설할 때면 우리는 이것이 환경에 피해를 일으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해가 없는 외적환경을 갖춘 것 자체가 삶의 질이 좋은 상태에 해당한다. 둘째, 성과의 질(quality of performance)이란 삶을 실현하는 능력(capability for life)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삶에 직면한 문제들을 아무 문제없이 해결하는 능력

을 갖추었다면 이 관점에서 보기에 삶의 질이 좋은 상태이다. 앞선 두 가지 개념들이 좋은 삶(good life), 높은 삶의 질, 을 위한 선결 조건인 점에 비해 셋째, 결과의 질(quality of the result)은 결과적으로 좋은 삶 그 자체를 의미하고 삶의 유용성(usefulness of life)을 의미한다.

## 2) 행복(Happiness)

Veehoven(1999, 2010)은 좋은 삶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린다. 삶의 기회와 결과, 좋은 삶의 특징이 외적인지 내적인지를 기준으로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이 중 삶의 결과이면서 내적 특성을 지닌 것을 ‘좁은 의미의 행복’으로 정의한다.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나 행복(happiness)이 여기에 속한다. 삶의 기회이면서 외적특성에 속하는 영역은 ‘살기 좋은 정도’를 나타내며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나 안녕(well-being)이라고 보면 된다. 삶의 기회이지만 내적 특성에 속하는 영역은 ‘삶의 실현 능력’을 나타내고 역량(capability)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좋은 삶이 가지는 자체의 의미, 즉 삶의 결과에 대한 것으로 삶의 결과이면서 외적 특성을 가지는 영역은 ‘삶의 효용’이라 부른다.

<표1> 삶의 질의 네 가지 구분

	외적 특성	내적 특성
삶의 기회	살기 좋은 정도 (Livability of environment)	삶의 실현 능력 (Life-ability of person)
삶의 결과	삶의 효용(Utilty of life)	만족(Satisfaction)

출처: Veehoven(1999)

Veenhoven은 이 중 우측 하단에 위치한 만족(satisfaction)을 다시 세분하여 <표2>와 같이 범위(scope)와 시간(time)을 기준으로 나눈다. 일시적(passing)이면서 삶의 일부에 속하는 것은 ‘쾌락(pleasure)’이고, 이것이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절정 경험(peak-experience)’이라고 본다. 반면 지속적이지만 삶의 일부에 나타나면 ‘부분적 만족(part-satisfaction)’이다. 끝으로 삶의 전반에 지속적인 만족을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 혹은 행복(happiness)이라고 정의한다.

이상 Veenhoven의 분류에 따라 본 연구에서 행복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the overall appreciation of one’s life as a whole)’이라고 정의하여 사용한다.

<표2> 만족의 네 가지 구분

	일시적	지속적
삶의 일부	쾌락(pleasure)	부분적 만족(part-satisfaction)
삶의 전반	절정 경험(peak-experience)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

출처: Veenhoven(1999)

## 2. 지방자치제도와 주민행복

### 1) 가까운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이다(Nearest government is the best)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통해 지방정부는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의 수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지역정책이 이루어져 주민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으로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D. Easton(1957)의 정치시스템 모형에 따르면 정치란 요구(demands)와 지지(support)라는 투입(inputs)이 정치시스템(the political system)을 거쳐 정책이나 결정(Decision and actions)이라는 산출(outputs)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응용하면 일정한 지자체를 생활범위로 살아가는 주민들은 지방정치的主체가 되는 자신의 관할 지방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투입시키고 지방정부를 통해서 행정서비스라는 산출을 얻고자 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정치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2) 지역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지역격차에 따른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주민소득격차를 들어 1인당 주민소득으로 지역격차를 파악하였다(홍기용, 1994). 그러나 1인당 주민소득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총량적인 소득 수치만을 가지고 지역 격차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인간의 복지, 삶의 질, 또는 인간의 기본 수요들을 포함하여 지역격차를 설명하기도 한다 (김의준, 1995).

또한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서도 지역격차를 설명한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는 다음의 두 가지 논의가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역량과 단체장의 역량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에 따르면 단체장의 조직 관리 능력, 창의력, 혁신성 등과 지방정부의 내부 구성원인 부단체장, 고위직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이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주요한 요인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써 주변의 상황적 요소들간의 상관성 논의이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지자체 장의 역량에 의해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정책 환경적 요소의 가변성이나 제약성들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상황적 요소들에 의해 지방정부의 역량이 결정된다면 이 역량이 지역 간의 격차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지역격차를 설명하기도 한다. 티부(Tiebout)에 따르면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응익원칙(benefit principle)을 통해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최적 규모에서 균형을 이루지 않다는 것은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패키지에 만족하지 않은 소비자와 유권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통해서 선호를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선호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조세와 지출을 결정하게 된다.

### 3. 국정목표로서 행복에 대한 논쟁

행복이 국정운영 목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다.

우선, 국정운영의 목표로써 행복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입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로는 개념적인 측면이다. 사람들이 삶의 질,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 같은 개념들을 행복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행복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불리 국정운영 목표로 행복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둘째로는 측정방법 측면이다. 반대자들은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측정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응답 당시의 상황에 따라, 측정수단에 따라 응답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수단을 개발하지 않는 한 국정운영 목표로써 행복을 설정하는 것은 언제나 측정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로는 다른 국정목표와의 상충되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이다. 행복 외에도 국정운영 목표로써 경제성장, 사회정의, 빈부격차 감소와 같은 목표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덮어두고 행복을 국정운영 목표로 삼는 것은 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대중에게 호도하게 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을 국정목표로 내거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찬성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행복에 대한 개념정의가 모호하고 측정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찬성론자들은 행복에 대한 연구가 매우 오랫동안 진보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많은 행복측정방법과 행복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행복이 국정목표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무엇보다 국정목표로서 행복이 가지는 정당성은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벤담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복 추구라고 보았으며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시 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을 보아도 행복은 국정운영 목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경제학자 Layard(2005)은 행복을 그 자체로 명백한 재화(self-evidently good)라고 보았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으며 경제 사회 정책이 시민들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Diener & Seligman(2004) 역시 웰빙이 경제, 건강, 사회정책을 형성하는 데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Donovan & Halpern (2002), Veenhoven(2002, 2004b), Marks(2004), Mcallister(2005), Elchardus & Smits(2007), Brulde(2007) 등의 연구가 이를 지지한다. 여론조사에서도 “행복은 사람들이 달성하려는 목표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고,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민주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Shrotryia, 2006).

## 제 2 절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이 지자체 간 행복의 차이를 분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간 삶의 질 혹은 행복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검색하였으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KISS(한국학술정보서비스시스템), DBPIA(누리미디어),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삶의 질’, ‘행복’, ‘지자체’, ‘비교’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국외 선행연구는 JSTOR, google scholar, EBSCOhost 등에서 ‘happiness’, ‘quality of life’, ‘government’, ‘differences’ 등의 단어를 넣어 검색하였다.

### 1.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sup>2)</sup>

#### 1) 단일 지자체 삶의 질, 행복에 관한 연구

박철민 외(1999)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

---

2)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4가지 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Myers, 1987). 첫째는 개인복지접근법(the personal well-being approach)으로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여 삶의 질을 분석하는 방법, 둘째, 지역사회접근법(the community trends approach)으로 지역사회 내의 삶의 질의 요소와 변화 경향을 분석하는 방법, 셋째, 생존적합성 비교접근법(the livability comparisons approach)으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다양한 지역 간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방법, 넷째, 시장 주민 접근법(the market resident approach)으로 특정지역의 높은 삶의 쾌적성은 주민들을 그 지역으로 흡입하는 요인으로서 주택가격을 높이고 임금 수준 하락을 가져와 임금격차와 주택가격의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의 질 만족 실태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영역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영역 2개 영역으로 변수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가정생활 만족도’, ‘주거장소 만족도’,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당해 자치구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9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이태중 외(2000)는 경주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수준을 인구통계학적 특성 영역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수준과 관련된 영역으로 나누어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삶의 질 영역에 해당하는 변수는 주택수급여건, 토지활용여건, 주거생활여건, 의료보건의여건, 교육여건, 취업여건, 경제생활여건 등 15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정건섭 외(2006)는 충청남도 서산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이한 사항을 보이는 문항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중 서산시에 사는 만족도를 보기 위하여 생활여건 만족도와 지역사회 만족도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생활여건 만족도 변수 중에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주거지역’의 만족도 변수가, 지역사회 만족도 변수 중에는 ‘행정서비스 제공’, ‘초중고 교육환경 여건’, ‘도심공원 등 녹지대’ 변수가 서산시에 사는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복 외(2006)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만족수준을 각 영역별로 측정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영역별 중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생활의 질은 가정생활 만족도, 주거장소 만족도, 직장활동에 대한 만족도, 이웃 친구 및 친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여가시간 활용에 관한 만족도로 측정되었다.

김상곤 외(2008)는 안산시 지역 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안산시 주민들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성별, 건강, 가정소득, 복지정책이 있음을 밝혔다. 행복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시의 지역주민 행복도 조사 설문을 이용하여 경제, 문화와 교육환경, 복지, 사회 안전, 생태환경, 생활환경, 도시행정,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주관적 가치인 건강상태, 도시거주자궁심, 주관적 행복도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승철(2011)은 대구 경북의 도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유형별로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된 삶의 질 지표는 환경, 경제, 사회, 기타 지표별 세부 측정지표 19개로 이루어져있다.

Knight 외(2009)는 중국 시골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에도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골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를 갖고, 좁은 범위의 준거집단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소득증가는 그들로 하여금 미래의 소득증가를 기대하게 만들어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시골지역 거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중요가치를 두는 점도 역시 이들이 행복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지자체 간 삶의 질, 행복 비교 연구

허철행 외(2000)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삶의 질 측정지표는 ‘지역경제부문’, ‘주거환경부문’, ‘교육문화부문’, ‘사회복지부문’에 따른 세부지표 35개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제1인자’의 하위변수인 학교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부의 영향), 극장 좌석수, 금융기관수 변수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2인자’의 하위변수인 차량대수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최준호(2001)는 광역화 된 대구광역시와 주변 위성 기초자치단체인 경산시 간의 주관적, 객관적 삶의 질을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관적 삶의 질 비교를 위해 사용된 지표는 ‘건강한 생활’, ‘공공안전’, ‘편리한 생활’, ‘자연환경’, ‘교육 및 복지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경제생활’, ‘인간관계’ 항목 별로 세부적 문항을 추가하여 측정하였으며, 객관적 삶의 질 비교를 위해서는 삶의 질 관련 사회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간 삶의 질은 비교우위적인 측면이 존재하였으며 지역정부는 주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비교 우위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태종 외(2005)는 대구광역시와 인근의 경상북도 경산시와 청도군의 삶의 질 만족도를 비교 평가 하였다. 삶의 질 지표는 ‘건강한 생활 여건’, ‘공공안전 생활여건’, ‘편리한 생활여건’, ‘지역의 자연환경’, ‘교육 및 복지생활’,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 ‘지역의 경제생활’, ‘기타 생활여건’ 으로 설정하고 각 지표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최준호(200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청도군의 삶의 질 만족도에는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차별화 된 정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송건섭(2007)은 지역수준별(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로 주민복지 및 삶의 질 영향요인을 설정하고 지역수준별 주민복지 및 삶의 만족도 차이, 생활여건 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각 생활여건이 지역수준별로 주민복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민복지는 지역수준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였다.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영향 요인으로 건강한 생활여건, 공공안전생활여건, 편리한 생활여건, 지역의 자연환경, 교육여건,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 경제생활여건, 기타생활여건으로 설정하였고, 분석결과 지역수준별로 주민복지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차별화 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Liu(1976)는 미국의 대도시 지역을 인구수에 따라 세 분류(large, medium, small)로 분류하여 각각의 그룹 내의 도시들을 삶의 질을 기준으로 4 ~5 개 등급을 매겨 비교하였다.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있는데 1976년 프랑스 정부는 지역별 삶의 질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Knox(1974)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삶의 수준(levels of living)을 53개의 변수를 통해 측정하고 순위를 매겼다.

Park(2001)은 1970년과 1980년 미국 일리노이 주의 102개 카운티의 삶의 질 랭킹의 변화를 ‘건강’, ‘사회적 소외’, ‘주택’, ‘교육’, ‘치안’, ‘소득과 부’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1970년에 비해 1980년에 일리노이 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주의 남부와 북부 간에는 삶의 질에 있어 지역격차가 존재하였고 지역별로 차별화 된 정책처방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Yamane 외(2008)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간의 행복과 소득의 격차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행정구역 간 행복의 격차는 소득의 격차보다 작았으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평균적인 행복수준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uettner(2008)는 지가(land-price)와 임금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독일의 카운티/도시 간의 삶의 질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삶의 질은 지역에 존재하는 편의시설, 불편의 시설에 대



한 지불용의 가격으로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지리적인 조건, 여가시설, 관광 편의시설에 따라 나타나거나 노동시장 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로 서독일의 남부 카운티가 삶의 질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동독일의 경우 삶의 질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지자체 삶의 질/행복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도)	종속변수 및 측정변수	연구대상 지방자치단체
박철민·송 건섭 (1999)	삶의 질 (가정생활영역, 주거장소영역, 건강 상태영역, 교육기관 영역, 직장생활 영역, 이웃, 친구, 친족관계 영역, 여 가시간활용 영역, 관할 자치구청 행 정서비스 영역)	-단일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이태종·송 건섭·박철 민 (2000)	삶의 질 (주택수급, 토지활용, 주거생활, 의 료보건, 교육, 취업, 경제생활, 인간 관계, 정치참여, 안전관리, 재난구호, 자연환경, 교통, 후생복지, 여가 문 화향유, 전반적 생활 등)	-단일 경상북도 경주시
정건섭·심 문보 (2006)	삶의 질 만족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 주거지역 만 족도, 행정서비스 제공, 초중고 교육 환경 여건, 도심공원 등 녹지대)	-단일 충청남도 서산시
조영복·박 철민	생활의 질: quality of life (가정생활 만족도, 주거장소 만족도,	-단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2006)	직장활동 만족도, 이웃 친구 및 친족관계 만족도,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	
김상곤·김성중 (2008)	행복도 (경제, 문화와 교육환경, 복지, 사회 안전, 생태환경, 생활환경, 도시행정,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일 경기도 안산시
이승철 (2011)	도시 유형별 삶의 질 (환경, 경제, 사회, 기타부문 관련 지표)	-유형별 도시 대구광역시 8개 구/군, 경상북도 23개 시/군
Knight, J., Song, L., & Gunatilaka, R. (2009)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단일 중국 농촌지역
허철행·김도엽 (2000)	삶의 질 (지역경제, 주거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 부문 관련 지표)	-연도별 비교 (1996~1998년) 1998년 기준 특별시와 광역시 제외한 일반시 대상
최준호 (2001)	삶의 질 (건강한 생활, 공공안전, 편리한 생활, 자연환경, 교육 및 복지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경제생활, 인간관계)	-비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항목별 세무문항과 사회지표)	
이태종·이 근수·송건 섭·이승철 (2005)	삶의 질 (건강한 생활여건, 공공안전 생활여 건, 편리한 생활 여건, 지역의 자연 환경, 교육 및 복지생활,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 지역의 경제생활, 기타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비교 대구광역시, 경상 북도 경산시, 청도 군
Park, S. Y. (2001)	삶의 질 (건강, 사회적 소외, 주택, 교육, 치 안, 소득과 부 요인)	-연도 간 비교 (1970년과 1980년) 美 일리노이 주 102개 카운티
Yamane, C., Yamane, S., & Tsutsui, Y. (2008)	행복	-비교 일본 행정구역
Buettner, T., & Ebertz, A. (2009)	삶의 질 (편의시설과 불편의 시설에 대한 지 불용의가격으로부터 도출)	-비교 동독과 서독의 도 시 및 카운티

##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sup>3)</sup>

###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수

#### (1) 소득과 행복

Diener, Horwitz & Eamons(1985)는 소득과 주관적인 웰빙 사이에 정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Oswald(1997)는 실업이 행복을 저하시킨  
다고 주장하며 직업에서 오는 소득이 행복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Graham & Pettinato(2001)는 실업수당의 수준과 물가상승률이 삶의 만  
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명소(2003)는 일정수준의 월 소득을 기  
점으로 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의 경제학자 Easterlin(1974)은 경제성장과 행복정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에 도전한다.  
흔히 ‘행복의 역설’ 혹은 ‘이스털린의 역설’ 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주장  
이후 소득과 행복에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Inglehart & Klingemann(2000)은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시민들의 삶  
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Ball & Chernova(2007)은 개인 스스로 응답한 행복정도가 절대소득  
그리고 상대소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하였다. 상대소득의 변화가

---

3) 삶의 질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접근법에 입각해있다(Sirgy, 2001). 첫째는 하향확산이론(top-down spillover theory, TD)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하향확산이론에 따르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은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성향이나 기질이다. 이미 주어진 이런 성향에 기초하여 하향확산적으로 삶의 영역에서의 효용을 결정하고 이어서 개인의 삶의 질을 긍정 혹은 부정으로 인식한다. 둘째는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 BU)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상향확산이론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부정적 효용을 주는 경험들이 상향확산적으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개인이 삶의 질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졌으나 절대적 소득과 상대적 소득 모두 행복과 유의미하게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금전적인 요소와 비교하였을 때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혼 상태와 행복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정서적 안정 요소를 빼놓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체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결혼한 사람이 독신, 이혼, 별거, 동거 상태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다(Diener외, 2008; Eid & Larsen., 2008; Myers, 2003; Kahneman외, 1999). 이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도 있으나 이혼, 별거, 배우자의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는 연구결과는 대체로 통일되어 있다(Lucas, 2005).

## (3) 성별, 연령과 행복

성별에 따른 행복의 정도는 국내와 국외 연구들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내 연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다(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차경호, 1999). 반면 국외연구에 따르면 남녀 간 행복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Andrew & Whitley, 1976; Campbell, Converse, Rodgers, 1976; Sauer, 1977).

연령에 따른 행복의 정도는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연구(Bradburn & Caplovitz, 1965), 나이의 영향이 없다

는 연구(Cameron, 1975, Sauer, 1977), 나이 든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Bortner & Hultsch, 1970)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다.

## 2) 공공서비스의 질과 행복

최준호(2003)에 따르면 지역정부의 공공서비스의 질 차이가 지역주민들에게 거주 혹은 이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곧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고명철(2013)은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정부성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정부성과와 삶의 질의 인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성과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사이의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공공 서비스 만족도의 효과가 정부성과, 삶의 질에 상향확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Myers(1987)는 텍사스 Austin 시민들의 삶의 질을 Community-Trend Method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특히 지역 주민(local citizens)들의 관심(interest)에 초점을 둔 본 방법론에 따라 기존의 Austin 시민의 삶의 질 연감에서 간과되었던 교통(traffic), 식수관리(water quality)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이 부각되었다.

Grzeskowiak 외(2003)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서비스(community services)에 대한 만족 모델을 5단계에 따라 나누고 서베이 분석을 통해 정부서비스가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Sirgy 외(2008) 은 앞서 Grzeskowiak 외(2003)의 모델에 기초하여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정부서비스(주택, 교육, 건강보험, 고용, 종교, 치안, 교통, 여가 등)에 대한 만족도가 이들의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표4>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영향요인	종속변수 및 영향관계		연구자 (연도)
소득	1)주관적 웰빙 2)행복	+	1)Diener, Horwitz & Eamons (1985) 2)Ball & Chernova(2007)
	1)행복 2)삶의 만족도	-	1)Easterlin(1974) 2)Inglehart & Klingemann(2000)
결혼상태	결혼한 사람이 행복		Diener et al(2008), Eid, M. & Larsen, R. J.(2008) Myers, D. G.(2003) Kahneman, D., Diener, E. D. & Schwarz, N. (1999)
	이혼, 별거, 배우자 사망 경험한 사람들은 덜 행복		Lucas, R. E. (2005) 등
성별	남성이 더 행복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1994), 차경호(1999)
	성별의 영향 없음		Andrew & Whitley(1976),

			Campbell, Converse, Rodgers(1976), Sauer(1977)
연령	+		Bortner & Hultsch (1970)
	-		Bradburn & Caplovitz (1965)
	연령의 영향 없음		Cameron(1975), Sauer(1977)
공공서비스의 질	삶의 질	+	최준호(2003), 고명철(2013),
정부서비스 (community service)에 대한 만족	1)지역에 대한 만족도 2)지역에 대한 만족도 및 삶의 질	+	1)Grzeskowiak et al. (2003) 2)Sirgy et al. (2008)

### 3.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우선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 및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일 지자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행복’이 아닌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전국단위의 지역주민들의 행복수준을 묻는 설문조사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의 연구는 없었으며, 지자체간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는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북의 시, 군 간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의 경우(최준호, 2001; 이태종 외, 2005) 지자체별로 일부 영역에서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인접한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다. 이승철(2011)의 연구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하였으나 지자체별 비교가 아닌 연도별 삶의 질을 비교하고 있으며 Park(2001)의 연구도 연도별로 지자체의 삶의 질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국 지자체(제주도와 군 지역 제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자료를 토대로 하고 종속변수를 주민들의 행복으로 설정함으로써, 첫째, 선행연구의 빈틈으로 지적될 수 있는 단일지역에 한정된 연구라는 점, 행복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가 없다는 점, 지자체간 행복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없다는 점들을 극복하고 그 빈틈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이 인접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한 광역시와 인접 지자체의 지역발전이라는 한정된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사실로부터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지자체를 분석단위로, 또한 이들 간의 비교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복정도를 높이는 방향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구통계학적변수와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관련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표4>와 같이 각각의 변수들이 행복 혹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행복이나 삶의 질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보면 정의 관계가 있음이 명확하나 행복과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앞선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삶의 질이 행복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행정서비스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지자체 간 주민들의 행복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나 연령등과 같은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행복의 인식정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최연혁, 2007). 특히 삶의 질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접근법으로서 상향확산식 접근법(bottom-up spillover theory; BU) 과 하향확산식 접근법(top-down spillover theory; TD)이 있으며 두 가지 접근법이 모두 행복이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데 각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sup>4)</sup>, 본 연구에서 상향확산식 접근법에서 고려하는 행정서비스 관련 변수와 하향확산식 접근법에서 고려하게 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앞선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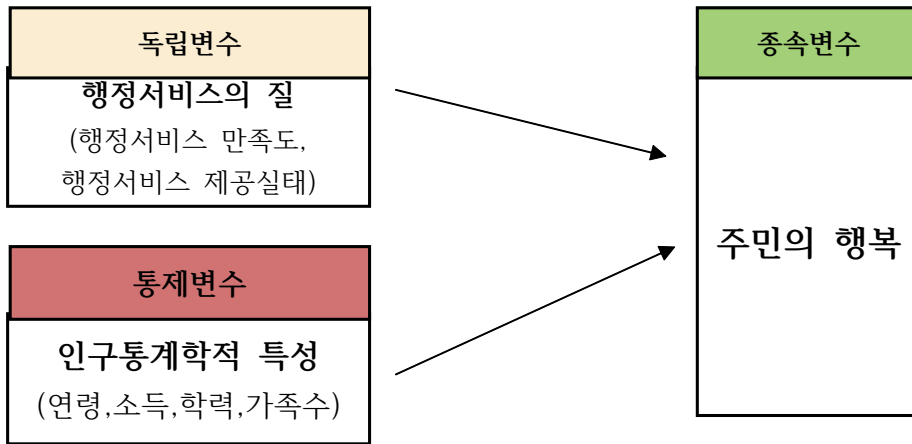
4) 상향확산식 접근법(bottom-up spillover theory; BU)은 개인이 경험하는 외부적 환경이 개인의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하향확산식 접근법은(top-down spillover theory; TD) 개인의 선 결정된(pre-determined) 특질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개인의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명철, 2013).

##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 제 1 절 연구 문제 및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행복한 지자체는 어떤 행정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기에 행복한 것이고, 행복하지 않은 지자체는 어떤 행정서비스의 부족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안전, 자연환경, 교육 및 복지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여건과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와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실태에 따라 주민의 행복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혀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지자체 주민의 행복이고, 독립변수는 행정서비스 질이며,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의 분석틀

## 제 2 절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 1. 종속변수: 주민의 행복

#### 1) 행복의 측정 방법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의 측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70년 European Commission이 당시 EC 회원국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1974년 유로바로미터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이후 Latinbarometer, Afrobarometer, World Values Survey,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등 많은 유사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행복 측정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서베이를 통한 측정, 2) 다양한 질문을 통한 측정, 3) 평가도구(assessment devices)를 통해 점수(scores)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첫째로 서베이를 통한 측정에서는 주로 3점 척도, 7점 척도, 4점 척도로 행복을 측정한다.<sup>5)</sup> 삶의 만족도나 행복수준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응답자들에게 “매우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매우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 “보통이다” 와 같이 묻는 방식이다. 둘째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행복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Cantril(1965)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행복정도를 측정하였다. “당신에게 최선으로 가능한 삶을 사다리의 가장 위단계(top of the ladder)라고 보고, 최악의 가능한 삶을 사다리의 가장 아랫단계(bottom of the ladder)라고 본다면 당신이 느끼기에 현재 당신은 어느 단계에 서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고 응답자는 0 ~ 10 까지 단계 중 하나의 숫자를 선택한다. 0에 가까울수록 Bottom of the ladder에 가까워져 불행한 수준이고, 10에 가까울수록 Top of the ladder로 행복하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영역의 모든 요인,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 직업, 집, 여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끝으로 평가도구로 점수화하는 측정 방법은 직업이나 결혼 등 특정한 삶의 부분에 대한 만족도나 긍정적인 영향 등을 측정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어 Rothwell & Cohen(2003)의

---

5) 3점 척도는 national surveys of Gurin et al. (1960), 사회적 연구 기구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Campbell과 동료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7점 척도는 Andrews and Withey (1976), Cantril (1965), Wessman and Ricks (1966), Kammaim and Flett (1983a), and Michalos(1985b)에 의해 사용되었다. 4점 척도는 European and world value surveys, Waves 1(1981-1984), 2 (1989-1993), 3(1994-1999), and 4(1999-2004)에서 사용되었다.

행복지수 산출법에 따르면 ‘행복= $P+(5*E)+(3*H)$ ’으로 측정한다. 여기서 P(Personal Characteristics)는 개인의 성격특성 및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 E(Existence)는 생존의 기본적 요소인 돈, 건강, 소속감 등, H(Higher Order)는 개인의 자존심이나 야망과 같은 고차원적 욕구를 말한다.

## 2)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 질문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응답자의 대답은 항상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Veenhoven, 2001). 사람들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응답할 때 그동안 겪었던 특정 행위나 사건 각각에 대한 반응들을 한꺼번에 생각하고 단순하게 체크할 가능성이 높고 설문문의 순서나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응답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자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그간의 특별한 경험들에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방법보다 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간의 일 중 무엇이 중요했고, 덜 중요했는지 판단하게 되고 숙고의 과정을 거쳐 간과했던 해석이나 평가를 덧붙여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Kahneman, 2005).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랜덤오류는 자체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본다(Ott, 2011). 예를 들어 실제로는 불행한 A라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잘못 응답한 경우와 실제로 행복한 B라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잘못 응답한 오류가 있을 것이므로 서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베이를 통해 “귀하는 요즘 행

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를 묻고, 응답자들은 매우 행복, 행복한 편, 보통, 행복하지 않은 편, 전혀 행복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중 하나를 택하여 대답하였다. 개인수준의 응답을 지역단위로 묶은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주민들의 행복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상위 25개 지자체와 하위 25개 지자체를 주민의 행복이라고 하고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 2. 독립변수: 행정서비스의 질<sup>6)</sup>

행정서비스 질의 측정은 주관적인 측정(Subjective Measurement)과 객관적인 측정(Objective Measurement)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주관적인 측정은 연성지표(Soft Data)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1990년대 초반 결과중심의 정부경영(result-oriented government management) 추세에 따라 시민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지표를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 방법이나 면접법을 활용하게 된다. 한편, 객관적인 측정은 경성지표(Hard Data)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정부에서 연방정부 성과평가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조직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직접 생산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그러나 주관적인 측정방법으로 대표되는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객관적 측정법과 다르게 주민의 주관적 감정이나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아

---

6)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상관관계수가 .9이상인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부록참고

타당성은 물론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객관적인 측정 방법은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최종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평가과정이 폐쇄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을 택할 것인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으며 (Behn, 2003) 측정지표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서비스에 따라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실제 제공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실태’를 각각 행정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주관적, 객관적 지표라고 보고 각각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주민행복과의 관계를 따로 분석한다.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서베이를 통해 총 16개 분야의 행정서비스<sup>7)</sup>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묻고, 지역단위로 16개 분야의 응답의 평균을 행정서비스만족도로 사용하여 분석한다. 선행 연구를 보면 행정서비스를 서비스 유형별로 나누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의 유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만족도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16개 분야에 대한 평균만족도를 분석에 사용한다.

다음으로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실태는 2011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한국도시통계 연감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관적인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대응되는 항목의 자료로서 생활환경부문, 사회복지부문, 교육부문, 문화 및 여가 부문의 자료를 직

---

7) 1. 쓰레기 수거 및 거리의 청소상태 만족도, 2. 대기 등 자연환경 만족도, 3.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4. 도로상태 만족도, 5. 공공도서관 만족도, 6. 문화활동 여건 만족도, 7. 공원 및 여가시설 만족도, 8. 상하수도 만족도, 9. 치안 및 사회질서 만족도, 10. 119 소방 방재서비스 만족도, 11. 사회복지시설 만족도, 12. 초중고 교육여건 만족도, 13. 보육여건 만족도, 14. 병원 등 의료시설 만족도, 15. 시장, 마트, 백화점 등 쇼핑여건 만족도, 16. 취업여건 만족도



집 수집하였다.

행정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와 실제 제공되고 있는 객관적인 실태를 둘 다 살펴봄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때 한쪽만 치중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실제로도 주민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살펴보는 것은 서비스의 최종수혜자로서 시민의 시각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행정서비스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고 응답자의 개별 욕구, 수혜에 대한 반응, 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객관성과 불편의성(unbiased)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 3.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Ryff와 Keyes(1995)는 개인의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직업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의 관계 속에서 행복정도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 간 여전히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베이를 통해 얻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결혼여부, 종교유무, 가족수이다. 이 중 종속변수인 주민행복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값>.4)를 보이는 연령, 소득, 학력, 가족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

8) Shingler et al.,(2008)은 정성적 평가지표(Subjective indicators)와 정량적 산출지표(Objective Indicators)의 보완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표5>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	변수	조작적 정의	척도	비고	
종속변수	주민의 행복	지자체 평균 행복점수	명목	상위25개 지자체 =1 하위25개 지자체 =2	
독립변수	행정서비스만족도	16개 분야의 지자체 평균점수	비율	행정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	
	1인당복지비지출(원)	=사회복지비지출 /당해년 주민등록인구수	비율		
	도로포장률(%)	도로포장률	비율		
	병상확보율(%)	병상확보율	비율		
	상하수도보급률(%)	상하수도보급률	비율		
	자살률(%)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비율		행정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
	경찰관수(명)	경찰관수 만명당	비율		
	119구조건수(건)	인명구조, 안전조치, 기타 구조처리건수	비율		
	학교수(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타학교	비율		

	문화기반시설수 (개)	박물관, 미술관수	비 율	
	사회복지시설수 (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 시설, 부랑인시설	비 율	
	보육시설수(개)	국공립, 직장, 보육시설	비 율	
통제변수	연령(세)	지자체별 평균연령	비 율	
	소득	지자체별 평균 월평균 소득	서 열	1. 100만원 미만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599만원 7. 600만원 이상
	학력	지자체별 평균 최종학력	서 열	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 이상
	가족수(명)	지자체별 평균 가족수	비 율	

### 제 3 절 가설의 설정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두 측면에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주민행복의 관계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주민의 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얻는 경험이나 공공서비스를 통해 얻는 만족도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 Sirgy 외(2008)은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높다고 연구한 바 있다.

#### 2. 행정서비스 제공 실태와 주민행복의 관계

행정서비스 제공 실태에 따라 주민의 행복은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나 몇몇 지표의 경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1인당 복지지출’ 지표의 경우, 복지지출이 높을수록 주민 1인당 얻는 복지관련 서비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민 행복이 향상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9)</sup> 반대로 복지지출이 많은 것은 복지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인당 복지지출액이 많다

---

9) 산술적으로 전체 복지비 액수를 인구수로 나눈 것을 1인당 복지지출 지표라고 정의하였으나 실제로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이 얻게 되는 수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1인당 복지비 지출이 높다고 반드시 주민행복이 향상된다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고,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고 행복한 지자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도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저소득자 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지비 지출이 많을수록, 사회복지시설수가 많을수록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119 구조건수’ 지표도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생활여건이 취약하고 사건사고가 잦은 경우 119 구조건수가 많다면 119구조 건수가 증가할수록 주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119가 요즘처럼 인명피해나 화재발생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차원<sup>10)</sup>에서 출동하는 건수가 많은 것이라면 119 구조건수가 높을수록 주민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119 소방방재 서비스의 기본 목적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구조건수가 많을수록 생활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 행복하지 않은 지자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경찰관수’ 지표의 경우, 주민의 치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주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치안이 불안정하고 범죄발생건수가 많아 경찰관수가 많은 것이라면 경찰관수가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지자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발생건수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수에 대한 해석은 치안과 지역질서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상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6>와 같다.

---

10) 실제로 119는 수도와 가스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에 대하여 직접 출동하여 처리해주는 119 신고확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표6> 연구 가설 설정

구분	가설
행정서비스 만족도 측면	<p>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주민행복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p> <p>-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한 지자체일 것이다.</p>
행정서비스 제공 실태 측면	<p>행정서비스 제공 실태와 주민행복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p> <p>- 도로포장률이 높을수록 행복한 지자체일 것이다.</p> <p>-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을수록 행복한 지자체일 것이다.</p> <p>- 1인당 복지지출이 높을수록 행복한 지자체일 것이다.</p> <p>- 119구조건수가 많을수록 행복하지 않은 지자체일 것이다.</p> <p>- 경찰관수가 많을수록 행복한 지자체일 것이다.</p> <p>- 자살률이 높을수록 행복하지 않은 지자체일 것이다.</p> <p>- 사회복지시설수가 많을수록 행복한 지자체일 것이다.</p> <p>- 학교수가 많을수록 행복한 지자체일 것이다.</p> <p>- 보육시설수가 많을수록 행복한 지자체일 것이다.</p> <p>- 문화기반시설수가 많을수록 행복한 지자체일 것이다.</p>

## 제 4 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 연구센터가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2 삶의 질과 정부 역할에 관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전국(제주 지역과 전국 8개도의 군 지역 제외)의 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표본크기는 10,450명으로 하여 응답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지역, 성, 연령별로 할당 표본추출 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 때 74개 일반시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100표본씩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3천 표본 내외를 배분하기 위해 제곱근비례기준으로 <표8>과 같이 권역별로 할당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를 지역으로 바꾸면서 지역별로 평균값을 내는 것은 대표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조사일시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20일(23일간)까지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통한 전화조사(CATI: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를 통해 수집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1.0\%$ p이다. 설문지는 행정기관 신뢰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생활 만족도 및 행복정도, 정치·경제적 이념성향, 응답자의 특성을 묻는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표7> 특별시·광역시 표본배분 현황

구분	만 19세 이상 인구수	인구 제공근 비례할 당	조정할 당 표본수 (제공근 비례기 준)	권역/구 (군) 수	권역/구(군)별 표본수
서울	8,356,583	795.78	800	4권역	권역별 200표본
부산	2,914,449	469.95	500	5권역	권역별 100표본
대구	1,991,769	388.51	400	3권역	동부/남부120표 본 중부권160표본
인천	2,249,656	412.89	400	4권역	권역별 100표본
광주	1,120,055	291.34	300	5개구	구별 60표본
대전	1,184,158	299.57	300	5개구	구별 60표본
울산	889,072	259.57	250	5개구	구(군)별 50표본
세종	89,613	82.41	100	구 없음	-
합계	18,795,355	3,000	3,050		



<표8> 권역별 포함지역

권역 구분		지 역
서울	강북서(6개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강북동(8개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남서(7개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동(4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1권역(3개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
	2권역(3개구)	북구, 남구, 동래구
	3권역(4개구)	금정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4권역(3개구군)	영도구, 서구, 기장군
	5권역(3개구)	동구, 강서구, 중구
대구	동부권(2개구)	동구, 수성구
	남부권(2개구군)	달성군, 달서구
	중부권(4개구)	북구, 중구, 남구, 서구
인천	도서권(2개군)	강화군, 옹진군
	동부권(3개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부권(2개구)	동구, 중구
	남부권(3개구)	남동구, 남구, 연수구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응답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변수별 기술통계량을 살펴본다. 그리고 주민의 행복차이가 독립변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발생했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행복한 집단=1, 행복하지 않은 집단=2)일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오즈(odds)에 로그(log)를 취한 값을 추정하는 분석기법이다. 여기서 오즈(odds)란 승산을 나타내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다.

$$\text{승산(odds)} = \frac{\text{사건이 발생할 확률}}{\text{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 \frac{P(A)}{1 - P(A)}$$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가 행복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0.6이라면 승산은  $60/40=1.5$ 가 되고, 이 의미는 행복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행복하지 않은 집단에 속할 확률의 1.5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집단에 속할 확률은  $40/60=0.66$ 이 된다. 이렇게 두 집단의 관계는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 두 집단의 승산값이 1이라면 행복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같다는 의미이므로 행복한 집단에 속할 확률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og\left[\frac{P}{1-P}\right] = \alpha + b_1X_1 + b_2X_2 + \dots + b_kX_k$$

## 제 4 장 분석 결과

### 제 1 절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과 같다. 총 10,450명의 표본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소득수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은 남녀가 각각 49%, 51%, 연령은 20대가 15.6%, 30대가 18%, 40대가 22.4%, 50대가 20.6%, 60대 이상이 23.4%를 차지한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20.6%, 고졸 37.9%, 대학재학 이상이 40.8%이다.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5.4%, 자영업이 11.7%, 블루칼라 11.5%, 화이트칼라 22.5%의 비율을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199만원 이하가 26.6%이고, 200~299만원이 15%, 300~399만원이 18%, 400~499만원이 12.7%, 500~599만원이 11.6%, 600만원 이상이 12.3%이다. 결혼여부를 보면 미혼이 20.7%, 기혼이 74.8%, 이혼 및 사별이 4.5%이다. 가족수는 1명인 경우가 7.7%, 2명이 22.8%, 3명이 20.7%, 4명이 34.5%, 5명이 10.3%, 6명 이상이 3.6%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종교별 비율을 살펴보면 기독교 23.7%, 천주교 8.5%, 불교 21%, 기타 0.7%, 무교 46.1%이다.

<표9> 조사응답자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 유형	특·광역시	3,050	29.2
	일반시	7,400	70.8
성별	남 자	5,125	49.0

	여 자	5,325	51.0	
연령	19 ~ 29세	1,628	15.6	
	30 대	1,884	18.0	
	40 대	2,344	22.4	
	50 대	2,148	20.6	
	60세 이상	2,446	23.4	
학력	중졸 이하	2,151	20.6	
	고 졸	3,961	37.9	
	대재 이상	4,264	40.8	
	모름/무응답	74	0.7	
직업	일하는 사람	농/수/축산업	569	5.4
		자영업	1,226	11.7
		블루칼라	1,203	11.5
		화이트칼라	2,347	22.5
	일하지 않은 사람	전업주부	2,886	27.6
		학생	926	8.9
		무직/기타	1,293	12.4
월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2,776	26.6	
	200 ~ 299만원	1,567	15.0	
	300 ~ 399만원	1,881	18.0	
	400 ~ 499만원	1,323	12.7	
	500 ~ 599만원	1,207	11.6	
	600만원 이상	1,289	12.3	
	모름/무응답	407	3.9	
결혼 여부	미 혼	2,162	20.7	
	기 혼	7,820	74.8	
	이혼 / 사별	468	4.5	
가족수	1 명	804	7.7	
	2 명	2,386	22.8	
	3 명	2,158	20.7	
	4 명	3,602	34.5	
	5 명	1,073	10.3	
	6명 이상	377	3.6	
	모름/무응답	50	0.5	
종교	종교 있음	기독교(개신교)	2,478	23.7
		천주교(카톨릭)	889	8.5
		불교	2,195	21.0

	기타	70	0.7
	종교 없음	4,818	46.1
전체		10,4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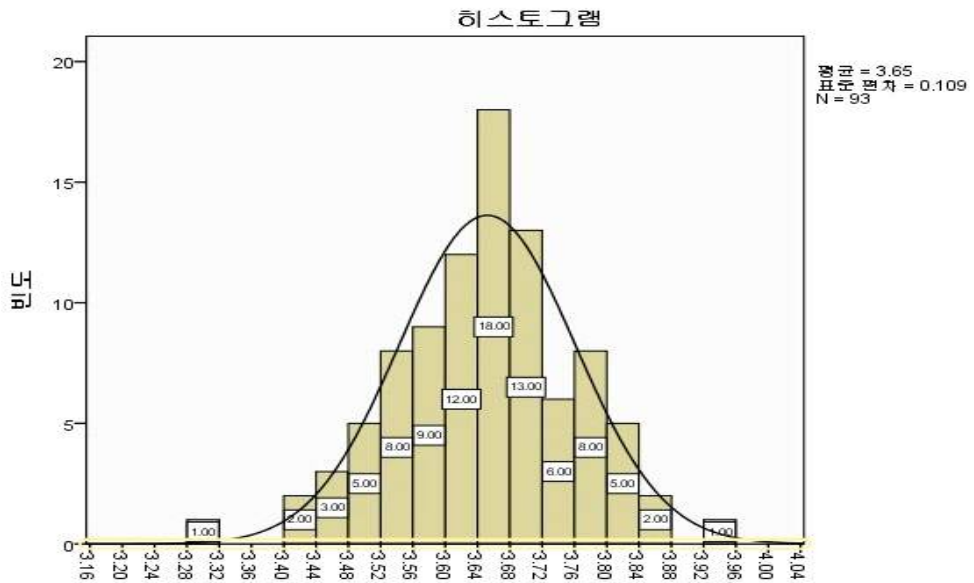
## 제 2 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전국의 143개 기초자치단체를 권역별로 묶은 93개의 지자체 주민의 행복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평균 3.6점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행복정도는 보통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지자체별로 행복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지역은 인천의 도서지역(3.2점)이고, 가장 행복한 지역은 경기 성남시(3.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우연히 인천 도서지역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있고, 성남시에는 대체로 행복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행복에 대한 응답을 지역별로 통계 낸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한계 상 지자체별로 행복점수의 차이가 무엇에 기인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일정한 지역을 거주범위로 하는 개인의 행복을 주변 환경을 무시하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해보면 인천도서권의 낮은 행복수준은 주민들의 고령화<sup>11)</sup>, 섬 지

11) 인천도서권의 평균연령은 57.4세로 전국에서 전남 나주시 다음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지역이다.

역의 낮은 접근성, 취약한 교통 환경,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군사접경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정서적 불안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병원을 찾는 노인 수가 많지만 취약한 교통 환경 탓에 병원에 찾아가는 일이 힘들고, 이동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가장 행복한 지역으로 꼽힌 경기 성남시의 경우 2012년 3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공약 완료 및 주민소통분야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지역 삶의 질의 필수요건으로서 주민참여가 제대로 실현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또한 성남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2> 전국 93개 권역의 행복점수 분포**

12) 성남시는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정모니터, 명예시장제,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해오고 있다.

다음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93개 권역을 주민행복에 따라 ‘행복한 집단’에 속하는 상위 25개 집단과 ‘행복하지 않은 집단’에 속하는 하위 25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표10>에서 보듯이 상위집단의 평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약 3.8점이고 하위집단의 평균은 약 3.5점이다. 상위집단에 속하는 지역은 경기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하위집단에 속하는 지역의 대부분은 서울 3개 권역과 경상북도 6개시가 차지하였다.<sup>13)</sup>

<표10>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민행복	93	3.29 (인천도서권 <sup>14)</sup> )	3.93 (경기 성남시)	3.65	0.10
주민행복 (상위집단)	25	3.71 (경기 하남시)	3.93 (경기 성남시)	3.78	0.05
주민행복 (하위집단)	25	3.29 (인천도서권)	3.58 (서울강북서 <sup>15)</sup> )	3.51	0.06

13)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목록은 부록참고

14) 강화군, 옹진군

15)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sup>16)</sup>

전국 93개 권역에 대한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학교수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18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경북 포항시에서 472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수는 경기 과천시에서 41개로 가장 수가 적었고, 경남 창원시가 1060개로 가장 많았다. 도로포장률은 전남 목포시가 48%로 가장 낮았고 서울 4개권역과 대구 동부권, 중부권,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시, 경기 과천시, 충남 계룡시가 각각 100%로 가장 높다. 경찰관수는 인구 만명당 경찰관수를 의미하며 서울 4개권역이 각각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광역시가 15명으로 가장 적었다. 119 구조건수는 대전광역시가 6014건으로 가장 적었고, 서울 4개권역이 662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병상확보율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0~1%에 그쳤고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안동, 충남 공주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수는 인천 도서권에서 13.5개로 가장 적었고, 경남 창원시가 1008개로 가장 많았다. 창원시는 특히 사회복지시설수도 가장 많은 지자체였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충남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sup>17)</sup>. 문화기반시설수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수를 합한 것으로 경기 용인시와 강원 강릉시에서 14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당 복지비 지출액은 사회복지비를 주민등록 인구로 나눈 값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강남동 권역이 약 23만원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김제시가 약 1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의미하며 충남 계룡시가 7%로 가장 낮고, 전남 나주가 52%로 가장 높다. 끝으로 평

16)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의 변수별 차이에 대한 t-test 검증은 부록 참조

17) 충남도는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아 수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다. 도민들은 지하수를 끌어 쓰기 때문에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가뭄 때면 지하수 고갈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 -뉴시스 2012년 10월 19일자 기사-



군행정서비스 만족도는 강원 태백시가 약 3점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 과천시 약 4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11>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 (개)	93	18 (경기 과천시)	472 (경북 포항시)	135.4	93.3
사회복지 시설수 (개)	93	41 (경기 과천시)	1060 (경남 창원시)	373.6	207.5
도로포장률 (%)	93	48 (전남 목포시)	100	78.9	14.2
경찰관수 (명)	93	15 (대전)	45 (서울 4개 권역)	21.2	6.52
119 구조건수 (건)	93	6014 (대전)	66258 (서울 4개 권역)	27258	19199.
병상확보율 (%)	93	0	3 (나주시, 김제시, 공주시, 안동시)	1.20	0.66
보육시설수 (개)	93	13.5 (인천 도서관)	1008 (경남 창원시)	262.8	242.1
상하수도 보급률 (%)	93	0 (충남 보령, 서산시)	100	90.7	17.3

문화기반 시설수 (개)	93	0	14 (경기 용인시, 강원 강릉시)	3.59	3.25
1인당 복지비 지출 (원)	93	233,881 (서울강남동 <sup>18)</sup> )	1,028,023 (전북 김제시)	54084 2.4	1.88E+0 5
자살률 (%)	93	7 (충남 계룡시)	52 (전남 나주시)	30.1	7.54
행정서비스 만족도	93	3.07 (강원 태백시)	3.94 (경기 과천시)	3.34	0.15

### 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전국의 가족수는 평균 약 3명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평균 가구 구성이 2인 이하의 가구구성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19)</sup> 평균 연령은 약 47.8세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2년 대한민국(0세~) 평균 연령은 38.9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서베이 데이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이 수치보다 평균연령은 높게 나타난다.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나주시로 평균연령이 57.6세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장 젊은 도시는 경기 오산시로 나타났으며 오산시는 실제로도 2011년 경기도에서 제일 젊은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월평균 가구소

18)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9)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가구원수는 2.69명으로 2005년의 2.88명보다 0.19명 감소했으며 2인 이하 가구가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득은 평균 3.8(200~40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약 4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은 자영업자의 가구소득도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를 포함하여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을 내보면 404만원으로 본 연구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도시는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던 나주시이다. 반면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평균 약 400~499만원인 서울 강남동 권역으로 여기에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개 구가 속한다. 최종학력은 전국 평균 고등학교 졸업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도서권이 2.3(중졸~고졸)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최종학력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동 권역으로 소득에 이어 최종학력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표12>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족수 (명)	93	2.67 (경북 문경시)	3.7 (인천동부권 <sup>20)</sup> )	3.28	0.23
연령 (세)	93	42.7 (경기 오산시)	57.6 (전남 나주시)	47.8	3.76
월평균 가구소득 21)	93	2.45 (전남 나주시)	5.09 (서울 강남동)	3.84	0.54
최종학력 22)	93	2.3 (인천도서권)	3.78 (서울 강남동)	3.10	0.32

20) 부평구, 계양구, 서구

21) 1. 100만원 이하,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599만원, 7. 600만원 이상

22) 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 5. 대학원 이상

### 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종속변수인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복한 상위집단을 1, 하위집단을 2로 코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sup>23)</sup>

#### 1.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주민행복으로의 영향

우선 회귀모형이 실제로 종속변수의 분류를 얼마나 잘 추정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25개의 행복상위 집단 중에서 회귀식으로 예측하면 19개가 제대로 예측되고 6개가 제대로 예측되지 않아 76%의 분류정확도를 보인다. 반면 25개의 행복하위 집단 중에서 회귀식으로 20개가 제대로 예측되고 나머지 5개는 빗나가 80%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도출된 회귀식은 평균적으로 실제 종속변수를 78%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

23)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의 코딩값이 작은 값은 0, 큰 값은 1로 자동 변환됨

<표13> 로짓 회귀식을 통한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 결과<sup>1</sup>

관측	예측값			분류정확 %
	행복여부			
행복여부	행복상위	19	6	76%
	행복하위	5	20	80%
전체 퍼센트				78%

-2log우도=41.616, Cox & Snell의 R제곱=.425,

카이제곱27.699, 자유도=5, 유의확률=.000(\*\*\*)<sup>24)</sup>

주: \* p<.1, \*\* p<.05, \*\*\* p<.001

다음은 회귀계수의 해석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도출되었다.

$$\log\left[\frac{P}{1-P}\right] = 57.248 - 0.436 \times \text{월평균가구소득} - 0.063 \times \text{연령} \\ + 0.38 \times \text{최종학력} - 10.046 \times \text{가족수} - 6.144 \times \text{행정서비스만족도}$$

(P = 행복하위집단에 속할 확률, 1-P = 행복상위집단에 속할 확률)

이 중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가족수와 평균 행정서비스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오즈(odds)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를 해석하면 ‘가족수’ 변수의 Exp(B)가 0이기 때문에

24) -2log우도는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함.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워질수록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고 본다. Cox & Snell의 R제곱은 선형회귀모형에서 결정계수( $r^2$ )와 비슷한 개념으로 실제 선형회귀분석시 두 수치는 유사하게 도출된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5보다 작기 때문에 널모형(null model;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상수만으로 구성된 모형)의 설명력과 회귀모형(독립변수가 투입된 모형)의 설명력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가족수가 1단위 증가할 때, 행복하위집단에 속할 오즈(odds)는 100%씩 감소한다는 의미이다.<sup>25)</sup> 이는 곧 가족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행복한 지자체에 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평균행정서비스 만족도’ 변수의 Exp(B)가 0.002이므로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 때, 행복하위 집단에 속할 오즈(odds)는 99.8%씩 감소한다. 즉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행복한 지자체에 속하게 된다는 뜻이다.

<표14> 행정서비스만족도와 주민행복의 로짓분석 결과

	B	S.E,	유의확률	Exp(B)
월평균가구소득	-0.436	2.217	0.844	0.647
연령	-0.063	0.3	0.835	0.939
최종학력	0.38	3.498	0.914	1.462
가족수	-10.046	4.407	0.023(**)	0
행정서비스만족도	-6.144	2.983	0.039(**)	0.002
상수항	57.248	27.458	0.037	7.28E+24

주: \* p<.1, \*\* p<.05, \*\*\* p<.001

## 2. 행정서비스 제공 실태의 주민행복으로의 영향

다음으로는 행정서비스 제공 실태와 주민행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회귀식에 의해 25개 지자체 중 실제 행복상위 집단에 속할 것으로 지자체는 22개로 추정되었고, 3개의 지자체가 빗나갔다. 하위집단도 3개가 빗나가 전체적으로 88%의 분류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25) 오즈(odds) =  $100(e^b - 1)$ ,  $e^b = \text{Exp}(B)$

<표15> 로짓 회귀식을 통한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 결과2

관측	예측값		분류정확 %	
	행복여부			
행복여부	행복상위	22	3	88%
	행복하위	3	22	88%
전체 퍼센트				88%

-2log우도=28.759, Cox & Snell의 R제곱=.556,  
카이제곱=40.556, 자유도=15, 유의확률=.000(\*\*\*)

주: \* p<.1, \*\* p<.05, \*\*\* p<.001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log\left[\frac{P}{1-P}\right] = -491.582 - 0.679 \times \text{월평균가구소득} - 0.937 \times \text{연령} - 9.686 \times \text{최종학력} - 12.622 \times \text{가족수} + 0.139 \times \text{도로포장률} + 0.001 \times \text{학교수} + 0.004 \times \text{문화기반시설수} - 0.001 \times \text{사회복지시설수} - 0.003 \times \text{보육시설수} + 0.101 \times \text{경찰관수}$$

( $P$  = 행복하위집단에 속할 확률,  $1-P$  = 행복상위집단에 속할 확률)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가족수’와 ‘도로포장률’ 변수만이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수의 Exp(B)값이 0으로 나타나 가족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행복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100%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행복한 지자체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도로포장률의 Exp(B)값은 1.149이므로 도로포장률이 1단위 증가할수록 행복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14.9%씩 증가하게 된다.

<표16> 행정서비스실태와 주민행복의 로짓분석 결과

	B	S.E,	유의확률	Exp(B)
월평균가구 소득	-0.679	3.516	0.847	0.507
연령	-0.937	0.582	0.107	0.392
최종학력	-9.686	7.375	0.189	0
가족수	-12.622	7.083	0.075(**)	0
1인당 복지비지출	0	0	0.684	1
도로포장률	0.139	0.081	0.086(**)	1.149
학교수	0.001	0.009	0.893	1.001
문화기반시 설수	0.004	0.23	0.987	1.004
사회복지시 설수	-0.001	0.004	0.85	0.999
보육시설수	-0.003	0.005	0.546	0.997
경찰관수	0.101	0.189	0.592	1.107
상하수도보 급률	0.018	0.055	0.741	1.018
자살률	0.023	0.109	0.836	1.023
병상확보율	2.045	1.576	0.195	7.726
119 구조건수	0	0	0.477	1
상수항	98.428	50.723	0.052	5.58E+42

주: \* p<.1, \*\* p<.05, \*\*\* p<.001



### 3.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한 지자체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행복한 지자체는 주민들이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수많은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고 본 연구의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로서는 도로 포장률이 높아질수록 행복 하위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up>26)</sup> 도로 포장률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교통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한 지자체에 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가설을 세웠으나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도로 포장률이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차량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아 공해나 소음과 같은 환경문제에 직면하거나 차량대수가 많아 주차공간의 부족문제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허철행 외, 2000).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도출된 회귀식이 종속변수의 분류를 상당부분 잘 설명하고 있었으나 그에 비해 유의미한 변수는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따라 주민들의 행복이 주민들의 행복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즘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반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서 누리면서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

---

26) 도로포장률이 1단위 증가할수록 행복하지 않은 지자체에 속할 확률이 14.9%씩 증가한다.

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가 좋지 않은 경우 주소지 이전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들을 감안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주민들의 행복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실제 통계적 기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주관적인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서비스를 통해 16개 영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지역별로 분류한 후 평균 총점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주관적인 행정서비스 만족도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들을 객관적인 지표로서 설정하고 이것이 주민행복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객관적인 지표의 경우, 주관적인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지표들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도시통계연감이나, 통계청의 지방지표와 같은 2차 자료를 토대로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행복 평균은 중간 이상

이었으나 지자체별로 주민들의 행복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행복한 도시는 경기 성남시이고 가장 행복하지 않은 도시는 인천 도서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도서권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 지리적으로 낮은 접근성과 침체된 지역 경제등과 같은 요소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 성남시는 실제로도 기초단체장 공약 완료 및 주민소통분야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등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행복순위 상위 지자체와 하위 지자체 집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주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행복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은 99.8%씩 감소하게 된다. 반면 객관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실태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단 도로포장률 변수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도로포장률이 1단위 증가할수록 행복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14.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해 도로포장률이 높은 지역은 차량이동이 많아 공해나 소음과 같은 환경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는 가족수가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행복하위지자체에 속할 확률이 100%씩 감소하게 된다. 이는 가족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정서적 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시사점

앞선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인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주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객관적인 행정서비스 실태 변수는 지자체간의 주민 행복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주관적인 서비스 만족도와 객관적 행정서비스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객관적으로 주어진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들은 직접 관료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소비하고 누리는 것이 가능하며 집합적으로 제공되고 사용되는 서비스라는 인식 때문에 개인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이것이 지역의 행복수준으로까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고명철, 2013).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 가족 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을 분석단위로 한 주민행복 분석임에도 여전히 개인차원의 요소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Gerson(1976)의 초월적 접근(transcendental approach)에 따르면 개인 차원의 삶의 질과 행복은 지역사회 전체 삶의 조건과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복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개인 주민 수준의 행복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개인의 행복을 묻는 하나의 문항을 토대로 지역의 행복순위를 정하였다는 데서 한계를 지닌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실태 변수들이 다양하게 측정된 것에 비하여 종속변수는 하나의 문항에 기초하여 도출되어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지역에 대하여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특색들을 연구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주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할 지표가 있었다면 한층 정치한 연구가 가능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개인의 행복수준을 서베이를 통해 묻고 이를 지역별로 행복순위를 매겼다는 점, 행복점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수준의 응답을 지역수준으로 변환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단위가 지역이고, 서베이는 개인수준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응답의 합이 반드시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성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객관적인 수치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역단위의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대표성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16개 영역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단순 평균값을 변수로 설정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영역별로 가중치를 각각 달리 부여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나 가중치 부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불가피하게 단순 평균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끝으로 분석방법에 있어서 한계이다. 종속변수가 질적변수인 경우, 판별분석을 사용할 수 있으나 판별분석의 해석에 있어 판별적재치의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 2. 향후 연구 과제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단일 문항으로 개인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의 행복순위를 정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행복순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나, 지역별 특색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토대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역의 행복순위를 정하고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주민 행복의 차이를 분석해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들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향후 연구자가 직접 지자체장과 인터뷰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다른 자료들을 추가하여 연구를 한다면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교통수단과 인터넷의 발달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범위와 반경이 넓어지고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자신의 행정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한층 수월해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을 단위로 하여 주민행복의 차이를 분석해본다면 지역정책 방향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명철(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1-30.
- 구재선(2005). 한국인의 행복한 생활경험과 정서경험: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구(2003).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보성군 ‘삶의 질’ 분석. 「지역발전 연구」, 8(2): 91-109.
- 김명소(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2(2): 1-33.
- 김병섭(2010). 「편견과 오류 줄이기 -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법문사.
- 김상곤·김성중(2008).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 325-351.
- 김소명 한영석(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소명·김혜원·차경호·임지영·한영석(2003).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8(2): 415-442.
- 김진주·구자영·서은국(2006).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행복. 「한국사회 및성격심리학회지」, 20(4): 61-70.
- 김태근(2006). 「U-Can 회귀분석」. 인간과 복지.
- 박철민·송건섭(1999). 자치구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분석 평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 103-12
- 송건섭(2007).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1(3): 35-52.

- 이승중(2005).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박영사.
- 이승철(2011). 도시유형별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구연구」, 15(2): 97-119.
- 이시경·이중화(2006).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측정방법의 재검토: 측정지표구성과 중요도의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0(1): 115-130.
- 이태중·송건섭·박철민(2000). 지역주민의 삶의 질 분석, 평가 -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 75-92.
- 이태중·이근수·송건섭·이승철(2005).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간 삶의 질 비교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211-229.
- 임승빈(2012). 「지방자치론」. 법문사.
- 정건섭·심문보(2006).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만족도 분석. 「한국토지행정학회보」, 13(1): 111-144.
- 조명한·김정오·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조영복·박철민(2006).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 수준 분석 -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3(2): 191-213.
- 차경호(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18: 575-595.
- 최말옥·문유석(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1): 277-299.
- 최연혁(2007). 스웨덴 모델의 정치적 함의와 한국정치. 「시민과세계」, 10: 316-339.



- 최준호 (2003). 광역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지역 주민간의 상호 이주 영향요인 평가: 공공서비스 질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1): 183-203.
- 최준호(2001). 광역자치단체와 위성 기초자치단체의 삶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4): 133-150.
- 추홍규(2005). 개인의 행복지수 수준과 결정 요인. 인제대학교 보건관리학 박사학위논문.
- 허철행·김도엽(2000).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12(4): 637-655.
- Andrew, F. M. & Wh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Ball, R., & Chernova, K.(2007).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 Research*, 88: 497-529.
- Bortner, R. W., & Hultsch, D. F.(1970). “A Multivariate Analysis of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25(1): 41-47.
- Bradburn & Caplovitz(1965). *Reports on Happiness. A Pilot Study of Behavior Related to Mental Health*.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Buettner, T., & Ebertz, A.(2008). “Quality of Life in the Regions: German Counties”.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43(1): 89-112.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V.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ntril, H.(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Cambridge Univ Press.
- Diener, E., & Seligman, M. E. P.(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 1-31.
- Diener, E., Horwitz, J., & Eamons, R. A.(1985). “Happiness of the very wealth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 263-274.
- Easterlin, R. A.(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aul A. David & Melvin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 Eid, M. & Larsen, R. J.(2008).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raham, C. & Pettinato, S.(2001). “Happiness, Markets, and Democracy: Latin America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3): 237-268.
- Grzeskowiak, S., Sirgy, M. J., & Widgery, R.(2003).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 Predictors and Outcomes”. *The Journal of Analysis and Policy*, 33(2): 1-36.
- Inglehart, R., & Klingemann, H. D.(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165-183.

- Kahneman, D.(2005). "Objective Happiness", In Kahneman Kahneman, D., Diener, E. D. & Schwarz, N.,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Russell Sage Foundation.
- Knight, J., Song, L., & Gunatilaka, R.(2009). "Subjective Well-Being and tis Determinants in Rural Chian". *China Economic Review*, 20: 635-649.
- Knox, P. L.(1974a). "Spatial Variations in Level of Living in England and Wales".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62(1): 1-24.
- Liu, B. C.(1976).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U.S. Metropolitan Areas: A Statistical Analysis*. New York: Praeger.
- Lucas, R. E.(2005). "Time Does Not Heal All Wounds A Longitudinal Study of Reaction and Adaptation to Divorce". *Psychological Science*, 16(12): 945-950.
- Myers, D. G.(1987). "Internal Monitoring of Quality of Life for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 1, 3.
- Oswald, A. J.(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445): 1815-1831.
- Ott, J. C.(2011). "Government and Happiness in 130 Nations: Good Governance Fosters Higher Level and More Equa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1): 3-22.
- Park, S. Y.(2001). "Quality of life in Illinois Counties". *Growth & Change*, 56-69.

- Ryff, C. D., &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hrotryia, V. K.(2006). “Happiness and Development: Public Policy Initiative in the Kingdom of Bhutan”. *Happiness and Public Policy*, 193–203.
- Sirgy, M. J., Efraty, D., Siegel, P., & Lee, D. J.(2001). “A New Measure of Quality of Work Life based on Need Satisfaction and Spillover Theories”. *Social Indicator Research*, 55(3): 241–302.
- Sirgy, M. J., Gao, T., & Young, R. F.(2008). “How Doe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Influence Quality of Life (QOL) Outcom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2): 81–105.
- Veenhoven, R.(1998). “Quality-of-Life and Happiness: Not Quite the Same”. In G. DeGirolamo, et al. (eds.), *Health and Quality-of-Life* (Il Pensiero Scientifico, Rome).
- Veenhoven, R.(1999). “The Four Qualities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 Veenhoven, R.(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Is that Possible and Desirab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605–629.
- Yamane, C., Yamane, S., & Tsutsui, Y.(2008). “Regional Disparity Measured by Subjective Happiness”. Discussion Papers in Economics and Business with number 08–29.

<부록1>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인당 복지비 지출	도로 포장률	학교수	문화 기반 시설수	사회 복지 시설수	보육 시설수	경찰 관수	상하수 도보급 률	행정 서비스 만족도	자살률	병상 확보율	119 구조 건수
1인당 복지비 지출	1											
도로 포장률	-.385**	1										
학교수	-.317**	-0.047	1									
문화 기반 시설수	-0.125	-0.05	.370**	1								
사회 복지 시설수	0.111	-.227*	.691**	.356**	1							
보육 시설수	-.558**	0.139	.773**	.354**	.525**	1						
경찰관 수	0.127	-0.017	-0.184	0.183	-0.177	-.261*	1					

상하수 도 보급률	-.332**	0.157	0.166	0.164	-0.112	.254*	0.054	1				
행정 서비스 만족도	-0.071	0.12	0.086	0.163	0	0.128	0.052	.261*	1			
자살률	.587**	-.360**	-.211*	-0.065	0.096	-.384**	0.082	-.446**	-.348**	1		
병상 확보율	.606**	-.334**	-0.087	0.025	0.136	-0.182	0.045	0.008	-0.022	.342**	1	
119 구조 건수	-.548**	.427**	0.051	0.092	-0.078	.354**	-0.046	0.189	0.026	-.299**	-.365**	1

\*\* .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05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부록2> 행복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행복점수

상위집단				하위집단			
1위~13위	행복점수	14~25위	행복점수	69위~77위	행복점수	78위~93위	행복점수
경기성남시	3.93	인천 동부권	3.77	서울 강북서권	3.5879	인천 중부권	3.5253
경북 김천시	3.8586	경남 진주시	3.7677	경기 안산시	3.5859	충남 논산시	3.52
전남 순천시	3.85	대구 남부권	3.7667	서울 강남서권	3.585	충남 보령시	3.52
경기 의정부시	3.84	경기 오산시	3.76	경기 평택시	3.58	서울 강북동권	3.52
충남 계룡시	3.8384	대구 동부권	3.75	경기 남양주시	3.5758	경북 안동시	3.5
전남 광양시	3.81	경기 안성시	3.74	전북 익산시	3.5657	부산 4권역	3.4848
경남 거제시	3.81	경기 고양시	3.74	경기 시흥시	3.56	경기 동두천시	3.47
경기 화성시	3.81	울산 광역시	3.736	경북 구미시	3.56	충남 공주시	3.4687
전남 여수시	3.798	강원 속초시	3.73	대구 중부권	3.5563	강원 태백시	3.46
경북 포항시	3.79	강원 춘천시	3.72	경북 영주시	3.5556	충북 제천시	3.4343
경기 과천시	3.78	광주 광역시	3.7157	경북 문경시	3.55	부산 1권역	3.4343
경기 의왕시	3.78	경기 하남시	3.71	경남 사천시	3.5455	인천 도서권	3.2929
경기 수원시	3.7732			경북 경주시	3.54		

<부록3>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변수별 차이검증(t-test) 결과

변수	행복상위집단			행복하위집단			차이검증
	N	Mean	S.D.	N	Mean	S.D.	Sig.
연령	25	45.9708	2.18428	25	49.1848	4.18019	0.002(**)
월평균가구소득	25	4.146	0.382546	25	3.5964	0.525483	0.000(***)
최종학력	25	3.2632	0.192716	25	2.9668	0.346864	0.001(***)
가족수	25	3.4188	0.13622	25	3.1767	0.20922	0.000(***)
행정서비스만족도	25	3.4103	0.20079	25	3.2958	0.12411	0.02(**)
1인당 복지비 지출	25	469175.3	1.23E+05	25	611885.5	1.93E+05	0.003(**)
도로포장률	25	80.73253	15.33204	25	82.694	12.29263	0.62
학교수	25	150.0067	109.0257	25	121.594	90.82876	0.322
문화기반시설수	25	3.1133	2.71129	25	3.588	3.39133	0.587
사회복지시설수	25	361.2213	209.4388	25	337.198	178.8996	0.665
보육시설수	25	310.5213	264.7292	25	194.694	185.8686	0.08(*)
경찰관수	25	19.44	4.174	25	23.44	8.766	0.047(**)
상하수도 보급률	25	95.35227	5.923214	25	89.446	23.28607	0.23
자살률	25	25.8	6.99405	25	33.12	7.76917	0.001(**)
병상확보율	25	0.894107	0.474212	25	1.4466	0.68798	0.002(**)
119구조건수	25	28383.92	19779.83	25	27854.08	21105.28	0.927

주: \* p<.1, \*\* p<.05, \*\*\* p<.001, two-tailed test



## Abstract

#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the Residents' Happiness of Local Governments

Yearam Kang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direct election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in 1995, this year is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Although local governments endeavor to improve the quality of its public services, it is rare to find a study in which the resident's happiness and their quality of life are set as variables, whereas most pre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olicy determinants theory, including budgets, and policie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variables which explain the

differences of residents' happiness of local governments, placing a focus on the public services. Dependent variable, which is set as residents' happiness, drawn from the survey is divided into two groups, the high-ranked local government group and the low-ranked local government group. Also,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offered by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is measured by subjective and objective method.

Below is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irst, as a subjective measurement,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public service i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on the resident's happiness.

In contrast, among objective measurements, the rate of pavement is the only factor that negatively affects on the residents' happiness. This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pollutions, or nuisances resulting from the increased use of the vehicles are the underlying causes of such result.

Third, the size of a family, among the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es on the happiness of the residents. As the size of a family increases by one-unit, the probability that a local government could fall into the low-ranked local governments decreases by 100%.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public services that are given objectively do not meaningfully

affect the level of happiness of the residents because those services are strongly perceived as they are offered collectively, and it is possible to consume such services without the residents' having the direct contact with the bureaucrats.

Second, even though it was the local government that is analyzed as a unit, the size of a family, which is a personal factor, does have a meaningful connection. This demonstrates that a policy to improve the happiness of a local government should also be designed to reach the individual resident.

However, this research has its limitations. First, the reliability of the dependent variables seems to be weak as the happiness-index ranking of local government is determined by one questionnaire. Second, there is an issue of representation when converting the individual answers into the regional level. Last but not least,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public services in 16 parts was measured by a simple average method as there was no uniform standard in weighting method.

**Keywords:** Residents' happiness, Quality of life,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Logistic regression

*Student Number:* 2012-21909